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권병학 (요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연중시기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루카 12,40)

미사 시간	
미 사	주일 11:00(본당)
	주일 17:30(공소)
평 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목) 19:00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목) 19:3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 년에 1 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 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주일 10:00, 대철실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 주 미사 후
샬별 Pr.	매주 주일 9:30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랑하올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 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 주(목) 성시간 후

ONE  
HEART,  
ONE  
SOUL

A Campaign for the Diocese of Hamilton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10/25 기준) 적립금액(\$76,263)

※ 주소 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총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1/26(일) 설 미사(본당 11:00, 공소 17:30)

▶1/28(화)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 학자 기념일(본당 20:00)

▶2/ 1(토) 성모 신심 미사(본당 11:00)

▶2/ 2(일) 주님 봉헌 축일(본당 11:00, 공소 17:30)

◎ 2025 년 초, 제병 및 제주 봉헌

올 해 사용할 초, 제병 및 제주 봉헌은 다음 주 2/ 2(일) 까지 전례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현금 영수증 배부

2024 년 현금 영수증은 복도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자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분과장 하태성 베드로

◎사목회의

1/31(금) 19:00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구역장 월례 회의

2/2(일) 미사 후 구역장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교구 특별 헌금

2/2(일) 신학생 양성 기금 헌금이 있습니다.

단체 소식

▶본당 울뜨레아 2/6(목) 미사 후 친교실

▶울뜨레아 쇄신피정

•기간:2025년 2/ 28 (금) 오후 5시 – 3/ 2 (일) 오후 3시

•St. Francis Centre, 208501 Highway 9, Caledon

•피정 주제: 동반자

•참가비: \$300

•준비물: 길잡이, 매일미사책, 묵주, 세면도구, 실내화, 방한화 및 외투 장갑

•마감 및 문의 접수: 2/16(일) 간사 박혜영 수산나

※신청서는 게시판에 있습니다.

공소 소식

◎ 이번 주 식사는 성모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1/26(일) 정기 사목회의. 친교 식사 후 회장님택

◎1 월 축일자: 송인순 에밀리아나

구역모임 (소식)

1 구역:1/26(일) 14:00 친교실

친교 식사

1/26: 1 구역(콩나물 배추 된장국 \$5/\$3)

2/ 2: 3 구역                      2/ 9:4 구역                      2/16: 5 구역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23 명)			
주일헌금	\$1270	교무금	\$120
감사헌금	\$0	성전건립	\$750

◎2 월 축일자 명단(7 명)

2/ 4 요안나(임성진)

2/ 5 아가다(주소연, 이금자)

2/10 스콜라스티카(강영희)

2/16 아가페(오예선)

2/18 요한 프라 안젤리코(정이안)

2/26 이사벨라(이지민)

2025 회년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회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주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니다.

하느님, 천사의 아람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1/26	신낙홍 마리아	최두원 스테파노 박수은 헬레나	1 독서: 김성수 베드로 2 독서: 이재순 데레사	이인선 쟈마 임연신 비아
2/ 2	권희진 요안나	이준서 사도요한 이지민 이사벨라 최아현 베로니카 이준규 안드레아	1 독서: 이인선 쟈마 2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김성수 베드로 이은영 할데가르트
2/ 9	이은영 할데가르트	유세진 라파엘, 최다희 보나	1 독서: 박혜영 수산나 2 독서: 임연신 비아	이인선 쟈마 박규혜 카타리나

【설 묵상】

김동희 모세 신부  
덕소 협력 사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민족은 해마다 두 차례, 새해 첫날과 음력 1월 1 일인 설날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축복을 갈망하는 우리이기 때문이겠지요.  
복받은 사람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에서 말미암은 존재’임을 아는 이들입니다. 지금의 자신이 있기까지 기막힌 우연과도 같은 다른 이의 수고와 은혜로움이 있었음을 아는 이들 말입니다. 오 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를 겪으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정주 시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 봄부터 소쩍새는 / 그렇게 울었나 보다 /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꽃 한 송이가 거저 피어나지 않았음을 노래한 것이지요.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을 주신 하느님, 그 덕분에 우리는 오늘 살아갑니다. 돌보아 주신 부모, 나를 감내해 준 형제자매들, 이끌어 가르쳐 준 고마운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무대가 되어 준 아름다운 초록 별 우리 공동의 집 지구가 스스로는 황폐해지면서도 지금까지 버텨 주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렇듯 수많은 연결 고리가 합쳐져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건져 올리는 그물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다고 마음 깊이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느님께 경배와 찬미를 드리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자녀, 이웃들의 다정한 친구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대 철 주 보

배움과 체험의 해  
2025 사목지침

<http://cafe.daum.net/stpeteryu>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설 (2025. 1. 26.)

제 1 독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6,22-27  
화답송 시편 90(89),2 와 4.5-6.12-13.14 와 16(◎ 17 ㄴ)



후렴.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장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돋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제 2 독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4,13-15  
복음 환호송 시편 145(144),2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알렐루야.  
복 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12,35-40